OCI 이우현 부사장 "검찰 소환"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 폴리실리콘 주식 부당이득 여부 조사

OCI 이수영 회장의 장남 이우현 부사장이 불법 주식거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소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전현준 부장검사)는 OCI의 주식 불법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수영 회장의 장남 이우현 부사장 등 두 아들을 최근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우현 부사장 등을 상대로 2007-08년 태양광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Polysilicone) 공급계약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10월 초 서울 중구의 OCI 본사를 압수수색해 주식거래 내역과 이사회 회의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6월 말 이우현 부사장과 모 언론사 경영진 등이 2008년 초 OC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조사 내용을 금융감독원에서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26>